

광역의회

여성운동가 상당수 도전 준비

확정자만 15명선...정당공천·'시민후보' 다양 조직·자금 취약...범여성권 지원대책 아쉬워

6월에 실시될 예정인 광역의회 선거에 '여성운동' '교육운동' '민주화운동' 분야의 일선에서 활동해온 여성운동가 상당수가 도전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강경대씨 타살사건으로 정국이 혼미를 거듭하면서 광역의회선거 일정 등이 불확실한 가운데 22일 현재 출마를 확정된 여성운동가는 약 15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정당 추천을 받는 경우는 6~7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뜻을 비치고 있다.

90년 3월 창립된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공동대표로 '인간화 교육운동'을 펴온 전봉자(연세대 교수·교육학)씨는 무소속으로 서울 도봉구에서 출마한다. 지난 3월 창립해 기초의회선거에 7명의 시민후보를 냈던 '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연대회의'가 내는 시민 후보의 한 사람이다.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이후 전남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의 중추역할을 담당해온 안성례(52), 이윤정(37)씨도 무소속으로 광주 시 서2 지구와 광주시 동구에서 각각 출마한다. 5·18 구속자가족협의회장·기장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인권위원장 등을 지낸 안씨는 현재 광주 민가협 회장·NCC인 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중이고, 이씨는 5·18 항쟁동지회 회

장·광주·전남여성회 운영위원으로 민주화 운동과 여성운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전주 나눔교회 목사 박상희(45)씨는 전주시역 7개 재야단체로 구성된 전북 지방의회선거 대책본부에서 민주후보로 내세워 전주시 갑3 선거구에서 나온다. 박씨는 88년 전북민주여성회를 발족시켜 이 지역 여성운동의 싹을 틔운 인물이다.

여성 운동가이자 시인인 노영희(43)씨는 민중당 추천으로 서울 은평 을구에서, 면목여성상담소 소장 이상덕(35)씨는 신민당 추천으로 서울 중랑 갑구에서 각각 출마한다.

민중당 여성위원회 위원장인 노씨는 매일경제신문 기사를 거쳐 서울 기독교여자청년회 간사, 여성의 전화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성폭력을 사회문제화한 변월수씨



6월 광역의회 선거에 각 지역에서 활동중인 '여성운동가' 상당수가 출마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은다.

사진은 지난 3월 기초의회선거 활동유세 장면.

사건,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 등 80년대 주요 여성운동을 주도적으로 편 활동가이다. 이씨는 여성평우회 운영위원, 여성의 전화 문화부장, KBS 텔레비전 시청료 거부운동연합 대책위원, 녹색의 전화 사무국장 등 진보적인 단체에서 10여년 동안 일했고, 박영숙 의원(신민) 보좌관으로 들어가 최근까지 활동하기도 했다.

서울 마포 을구에서 민주당 공천으로 나오는 한성자(36)씨는 84년 망원동 물난리 때 입은 피해는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6년 만에 배

상금을 받아낸 주민대표이다.

지역문제를 지역주민의 힘으로 해결해내는 지역운동의 본모기를 보여준 인물이다.

이밖에 경북 안동에서 가톨릭 농민운동을 펴온 양마리아씨는 민중당 추천으로, 9급 행정직 공무원의 남녀구분 모집을 사회문제화시킨 경남여성회 최갑숙 회장 등이 여성운동가 출신으로 광역의회선거에 나선다. 또 지난 2월 창립된 '정치 참여를 위한 범여성모임'이 내는 여성후보로는 주부 박영희(43)씨가 서울 강남에서 출마한다.

6월 광역의회선거에 각 지역에서 활동중인 여성운동가 상당수

가 나서는 데 대해 여성계에선 "여성운동의 영역을 넓힐 것"으로 평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운동가 출신으로 인천시 북구 기초의회의원인 된 홍미영씨는 "여성후보로 나가라는 여성계의 권유로 선거에 뛰어들어 당선됐지만 여성계의 무관심과 취약한 조직·자금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털어놓으면서 "여성계가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의 필요성'만 강조할 뿐 선거법상 제약을 내세우며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도, 지원방안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의식있는 여성운동가들이 선거에 나서려 하지 않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